

##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남 미 우·조 정 미\*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 The effect of Religious Habits and Hair Styles on Korean Catholic Sister's Impression

Mi Woo Nam · Jung Mee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1997. 3. 20 접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ligious habits and hair styles on korean catholic sister's impression.

The subject consisted of 256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nd 256 female undergraduated students.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16 color photographs stimuli of drawing and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scale composed of 30 bipolar adjectives representing personal traits.

The major findings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Four factors emerged to account for the dimentional structure of the impression of the Korean catholic sister's in religious habits. Four factors involved purity, formality, potency, appearance.
- 2) The clothing types and hair styles had significant effect on purity, formality, potency, appearance. The clothing types had an effect on purity, formality and potency while the hair styles affected formality.
- 3) Perceiver's age influenced impressions formed by clothing and hair styles.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ere affected by clothing and hair styles in formality, potency, appearance while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in purity, formality, potency.

Therefore the religious habits and hair styles had significant effect on korean catholic women's impression of purity, formality, potency, appearance and impression formation was varied according to perceiver's age.

## I. 서 론

종교는 인류 문화의 근간이 되어 온 것으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사고나 생활 양식을 통해 이어져 왔으며 복식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출되고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종교의식에 있어 의복이 의례를 심도 있게 함으로서 종교복식이 생겨 났으며 이러한 종교 복식은 신성과 절대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반 복식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보급되어 있는 여러 종교는 각각의 교리와 신념에 따라 복식의 착용 방식이나 착용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의 여성 수도자들이 착용하는 수도복은 고행,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시, 하나님의 자녀됨, 가난, 그리스도의 명에 등을 의미한다. 수도복의 형태는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수도회가 많이 설립되던 12, 13세기 수도복의 형태를 수세기 동안 유지 해오다가 1965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도 생활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이 선포된 이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교령의 영향으로 수도복의 형태는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각 수도회의 고유한 은사나 수행하는 사도직 역할에 맞추어 변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은 대부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변화된 형태인 흰색의 롤 칼라가 부착된 원피스 형태의 수도복을 머리수건(베일 : veil)과 함께 착용하고 있으며, 색상은 겨울에는 검정색, 여름에는 회색을 많이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 속에 더욱 접근하고, 현대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일반인과 같은 차림의 사복을 하는 수도회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완전히 사복을 선택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사도직의 역할에 따라서 수도복을 변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조금씩이나마 시도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원피스 스타일에서 스커트, 블라우스에 재킷을 착용한 투피스 스타일을 채택하거나 베일을 착용하지 않는 수도회들도 생기기 시작하였다.

의복은 특정한 역할과의 관계에서 선태되고 역할의 변화는 의복의 변화를 동반한다. 또한 직업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과 유행 감각이 결들어진 의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요즘 제복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에 들어 한국의 여성 수도회들은 과거의 외국의 도움을 받던 때와는 달리 저개발 국가에 대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발 맞추어 여성 수도자의 사도직 수행 영역 또한 전문적이고 전보적인 범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톨릭 교회 내에서 여성수도자들의 위상 또한 더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사도직 역할의 확대와 위상의 변화, 해외에서의 한국 여성 수도자들의 정체성 확립에 따른 수도복의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며, 일부 수도회에서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수도복의 변화를 조금씩 시도하고 있다(조정미, 1997).

그러므로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다양한 사목활동을 위해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변화된 수도복을 현재까지 30여년간 착용하면서, 다양해진 사도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수도자들의 인상이 현대의 일반인에게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또한 일부 수도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아직은 보수적 이기는 하나 다소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의 수도복과 머리모양이 전통적인 수도복을 착용한 수도자들의 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여자 대학생은 청년기로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며, 여자고등학생은 청소년기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도록 기대되며 이러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외모와 관련된 신체적인 측면들에 특히 주의를 하게 되고(Daters, 1990), 모호함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회 입회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후에 이루어지고, 늦게는 대학교 졸업후에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도복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차이가 있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다양한 수도복의 유형과 머리모양이 수도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또한 융합자의 연령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형태주의 심리학 이론중의 하나인 내현성격이론, 의복과 인상형성연구, 가톨릭 여성 수도복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1. 내현 성격 이론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이나 성격추론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이 소속한 집단이나 역할에 따라 보다 큰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하여 같은 집단에 소속되면 시각적 특성, 행동적 특성 그리고 신념 체계가 유사하다고 간주하는 고정 관념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범주화란 자극물을 접했을 때 즉각적, 자발적,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유목화 작업이며(Cantor와 Mischell, 1977) 이론에 따르면 지각자는 여러 종류의 독립된 지각체를 지각체의 시각적 특징(연령, 체격, 성별, 종족머리색, 사회계층)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범주화하여 그 결과 자극물의 복잡성을 줄이고 조직화하므로 정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Hamilton, 1979). Allport(1954)는 범주화와 관련된 고정된 신념을 고정관념이라 했고 고정관념은 집단에 관한 일반인의 내현성격이론으로서 어떤 집단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한 세트의 신념이며 이러한 신념은 임의적인 사회 규범에 의해 정의된다. 한편 내현성격이론이란 개인의 성격 특성들간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기초로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을 일반화 시킴으로써 지각 대상자가 행동할 당시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 다른 특성들까지도 추리한다고 설명하며, Schneider 등(1979)은 내현성격이론은 성격 특성간의 상호 관련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행동 스타일 비언어적 단서 및 신체적 특성의 상호 연관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의복과 인상형성

의복과 인상형성에 관해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내용분석한 Damhorst(1990)의 연구결과에서 의복은 인상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고 인상 형성내용의 주류를 이루는 3개 범주는 평가, 역능, 역동성이었다. 평가적 차원에는 착용자의 성격, 사회성 등에 대한 긍

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었으며, 역능적 차원에는 힘, 능력, 지능 등의 지각이 포함되었고, 역동성 차원은 활동성에 관계된 것으로 활동, 통제, 자극등이 포함되었고, 사고적 차원은 신념체계,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의복과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복, 종교복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여성복에 관한 연구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amid(1968)는 의복스타일에는 일관된 특질고정관념이 존재하고 고정관념적 특성은 얼굴의 인상보다는 의복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보수적인 스타일의 의복, 의복규범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등은 성실하고 신뢰성 있으며 인습적이며 격식차린 인상(Sweat과 Zentner, 1983)을 주었다. 몸의 선이 드러나지 않는 짐잖은 의복은 호감과 친절, 따뜻한 인상을 주었다(Abbey, 1987). 여성정장 착용자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여성적이고, 매력적,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되었고(Harris 등, 1983) 직장여성 및 주부의 역할도식(이주현, 1990)과 관련되었으며 활동적이고 권위적인 인상(Damhorst, 1985)이 전달되었다. 의복의 색상은 의복에서 가장 표현력이 큰 요소이나 인상형성연구에서 의복의 색은 의복유형보다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Winakor와 Navarro(1987)의 연구에서 착용자에 관한 호감평가에 의복색의 명도는 체계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의복유형은 체계적이고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성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의길이이고, 다음이 색상이며, 빨간색 착용자는 화려하고 특이한 사람으로 파랑색 의복착용자는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검정색은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사람으로 지각되었다(이주현, 1990). 한편 직업 특성 평가에 미치는 의복단서는 suit의 경우 색상보다 형태의 영향이 커졌고 blouse, skirt의 경우 skirt의 색은 평가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나 blouse색의 영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김광경, 1991).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머리스타일에 관한 분영보(1991)의 연구에서 머리스타일은 착용자의 인상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지각자의 영향은 인상형성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연령의 차이는 청소년 후기에서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으나, 남성복의 경우 짧은 사람들은 캐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노인들은 격식차린 또는 보수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었다(Bell, 1991).

### 3. 수도복의 의미와 기능

수도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받으며 변천해 왔는데 주로 동시대 그 지역의 노동복, 평상복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일반인들이 착용하지 않게 되자 수도복으로 착용된 것인데, 이는 수도자의 본질적인 요소인 단순성, 정결, 청빈을 따르기 위해 결정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전통적인 수도복은 존엄한 자에 대한 봉사와 위엄을 표시하기 위해서 큰 두건을 쓰고 소매단이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한 인체미를 나타내지 않았고 동정녀의 머리수건도 용모를 숨기려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수도복은 표현욕이나 장식적 차원을 넘어 내면세계를 상징하는 의미가 뚜렷하다. 색상은 주로 흰색, 검은색, 회색 등의 무채색으로 흰색은 영혼의 순수성과 품행의 무후성(無垢性)을, 검은색은 상복, 보속, 겸손을 나타낸다. (G. Pelliccica, G. Rocca, 1994) 전통적인 수도복의 종류에는 Tunica, Cuculla, Scapulare, Cintura, Cappa, Baculus, Tonsura 등이 있고 이들 옷 하나하나에 내포된 상징성은 위선과 걸치레가 없는 삶, 은총, 신앙, 가난, 순수성, 봉사, 부활등이다. (황경순, 1988)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여성 수도자들이 다양한 사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현대화 되어가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수도복도 점차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수도복은 하나님께 축성된 자의 표징이기 때문에 간소하고 예의 바르고 검소함과 동시에 단정해야만 하며, 또한 건강 유지에 알맞고 시대와 장소의 사정 및 임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수도 생활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Perfect Caritatis*)은 수도복 변화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수도회들이 현재의 수도복을 착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 맞추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하여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는 의미에서 수도복을 벗고 사복을 착용하는 수도회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조정미, 1997)

현재 대부분의 수도회의 수도복은 급격한 유행의 변화와 개성이 보다 고정된 형의 전통미를 중시하면서 계

속 입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한국 여성 수도회의 위상 변화, 사도직 확대에 따른 수도복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수도복의 착용여부는 전적으로 각 수도회 스스로의 카리스마에 의한 구체적인 생활 방식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수도복은 내적으로는 거룩한 옷이 되어야 하며, 외적으로는 의복을 통해서 수도생활의 가치있는 메시지를 현대세계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준 실험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의 가설 및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가설 및 측정도구

##### 1) 연구가설

가설 1: 수도복의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수도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자의 연령은 수도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수도복의 소매길이와 색상이 수도복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상을 제시하는 자극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로 구성되었다.

##### (1) 자극물

본 연구의 자극물은 20대 수녀의 그림사진(5×7in) 총 16가지이며 조작된 의복단서는 머리모양, 의복유형 각기 4수준으로 조작 되었고 각 자극물 번호에 따른 의복단서변인의 조작내용은 <표 1>과 같다.

자극물 제작은 한국 가톨릭 여성수도회 복식에 관해 연구한 조정미(1997)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수도복의 유형을 정하였으며, 머리모양은 사복 수도회 수도자들의 머리모양을 조사하여 전문가 집단에게 형태 타당성을 검토받아 여러번의 수정 끝에 각기 4가지 수준으로 조작된 16개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머리모양은 전통적인 수녀들의 머리모양으로 veil을 착용한 경우와 cap을 착용한 경우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자른 cut형, 단발모양으로 파마를 한 경우로 조작되었

&lt;표 1&gt; 각 자극물의 의복단서 조작 내용

단서	머리모양				의복유형			
	머리수건	cap	cut	파마	원피스	B/S	suit	B/P
VO	V				V			
VBS	V				V			
VSu	V					V		
VBP	V						V	
CaO		V			V			
CaBS		V			V			
CaSu		V				V		
CaBP		V					V	
CuO		V		V				
CuBS		V			V			
CuSu		V			V			
CuBP		V					V	
PO			V	V				
PBS			V		V			
PSu			V			V		
PBP			V				V	

V : 머리수건(Veil), Cu : cut형 머리모양,  
 O : one-piece형 수도복, Su : suit,  
 Ca : caps를 착용한 머리모양, P : 파마한 머리모양,  
 BS : blouse/skirt, BP : blouse/pants

고 착용된 의복형태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장 많은 수도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녀복의 형태인 원피스 형태와 블라우스와 스커트, 테일러드 재킷의 슈트, 블라우스와 팬츠를 착용한 것으로 조작 되었다. 단 팬츠의 형태를 공식적으로 착용하는 수도회는 아직 없으나 다양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 수도자들의 여러 의복 형태에 대한 인상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채택하였다. 이 때 수녀복의 색상은 현재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색상인 회색으로 통제 하였고, 착용자의 연령은 응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20대로 제한 하였으며, 착용자의 자세, 스커트 길이, 얼굴 표정 및 배경을 일정하게 하였다.

또한 부가적 관심의 규명을 위하여 전통적인 onepiece형의 수녀복을 반팔소매로 조작하였고, 두번 째는 색상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인 수녀복에

색상을 아이보리, 고동색, 감색, 검정색으로 조작하였다.

## (2) 의미미분척도

자극물 속의 의복착용자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등간형 7점척도로 문헌조사와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선행연구들(Osgood등, 1957; 장동환, 1964; 박혜선, 1982; 강혜원, 이주현, 1990)에서 사용된 의미미분척도와 수녀복착용자의 인상을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쌍을 여자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유응답으로 기술하도록 한 사전조사결과를 토대로 63개 형용사쌍을 선택하였다. 전문가집단(의류학 교수 4명)의 평가에 따라 의복착용자의 인상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형용사쌍 16개를 제외한 47개의 형용사쌍을 수집하였다. 예비조사결과 2개 이상의 요인성격을 떤 것, 요인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것, 낮은 Communalilty 다른 형용사쌍과 유사한 것은 본조사에서 제외시켜 최종 30개의 형용사쌍으로 축소되었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자고등학생 256명과 여자대학생 256명으로 총 512명이다.

자료수집은 1996. 11월에서 12월에 이루어졌고 자료수집방법은 실험디자인에 의하여 유충화된 임의표집에 의하였다.

자료분석방법으로 의미미분척도 결과는 요인분석하였고 가설검증은 변량분석과 보조적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수준 안에서의 차이검정은 일원변량분석과 던컨의 다중비교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수녀복 착용자 인상이 요인도출

가설검정 및 부가적 관심의 규명에 앞서 의미미분척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요인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수녀복착용자에 대해 형성되어지는 인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후속분석을 위한 적은 수의 변수로 축소하기 위한 것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모형과 varimax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도출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lt;표 2&gt; 의복 착용자로부터 도출된 인상요인

요인 1: 순수성 요인		요인 2: 경직성 요인		요인 3: 능력 요인		요인 4: 외모특성 요인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형 용 사	부하치
성실하지않은/성실한	0.78	엄격하지않은/엄격한	0.71	약한/강한	0.77	시대에 뒤떨어지는/시대에 맞는	0.62
정숙하지않은/정숙한	0.73	격식을안차린/격식을차린	0.66	우유부단한/결단력있는	0.70	보기싫은/보기좋은	0.61
이기적인/회생적인	0.72	경직되지않은/경직된	0.65	소심한/대담한	0.60	따분한/따분하지않은	0.60
순수하지않은/순수한	0.68	가까이하기쉬운/가까이하기 어려운	0.59	의욕적이지않은/의욕적인	0.60	세련된/촌스러운	-0.64
경건하지않은/경건한	0.60	동적인/정적인	0.57	능력없는/능력있는	0.51	투박하지않은/투박한	-0.70
경박한/신중한	0.58	고전적인/현대적인	-0.49	독립적인/의존적인	-0.69		
믿음직한/믿음직하지못한	-0.65	비활동적인/활동적인	-0.50				
권위적인/권위적이지않은			-0.71				
총 변량에 대한 설명력	24.06%		17.34%		6.85%		3.88%
총 설명력				52.13%			

<표 2>와 같이 응답자 연령에 관계없이 4개요인이 도출되었고 제1요인은 순수성 요인으로 24.0%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제2요인은 경직성 요인으로 17.3%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제3요인은 능력 요인, 요인 제4요인은 외모특성 요인으로 3.9%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요인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cronbach를 산출한 결과 요인 1은 0.83, 요인 2는 0.82, 요인 3과 요인 4는 0.78로 나타났다.

한편 두 개이상의 요인특성을 갖는 형용사쌍(남성적 인-여성적인, 멀렁대는-멀렁대지 않는, 형식적인-형식적이지 않은)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설 검정의 규명을 위한 분석에 사용된 요인점수는 전체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계산하였고 계산방법은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의 기여도에 따른 점수계산법인 회귀모델을 사용하였다. 요인점수에 따른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순수성 요인에서는 순수하고 회생적이며 성실하고, 경직성 요인에는 더욱 엄격하고 가까이하기 어려우며 경직된 것으로, 능력 요인은 강하고 대담하며 능력 있는 것으로, 외모특성 요인은 시대에 맞고, 보기 좋으며, 세련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머리모양과 의복 디자인을 달리한 수녀복 착용자에 대하여 지각된 인상의 내현성격이론 체계는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 요인으로 분리 구성되며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순수성 요인이 총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인상차원중에서 평가적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Osgood 등(1957), 징동환(1964), 박혜선(1982), 강혜원(199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순수성 요인과 함께 경직성 요인의 도출은 본 연구의 자극물이 가톨릭교회의 수도복으로 종교복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종교복식이 신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며 일반복식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와 색채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러한 종교복식이 가지는 상징성을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수적인 스타일의 의복은 성실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격식을 차린 인상을 준다는 Sweat와 Zentner(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의복 스타일에는 일관된 특질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Hamid(196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문현조사,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많은 형용사쌍을 선정하여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평가차원의 개인적인 성격특질(호오차원)을 묘사하는 많은 수의 형용사쌍이 제거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자극물이 개인의 의복이 아닌 집단의 제복이므로 착용자의 개인적인 특성 평가보다는 수녀복 착용자 집단에 대하여 고정관념적인 인상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능력 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요인이나 수녀복 착용자의 인상에서 능력 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은 강하고 대담하며 의욕적

이지만 의존적인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강하지만 절대적인 신에 대하여 의존하는 수도자의 모습이 지각자들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외모특성요인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시대에 맞고 보기 좋고 투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모특성요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물에 조작된 독립변인의 영향으로 판단되어진다. 즉 일반인들은 수녀복을 통하여 순수성, 경직성, 능력에 관련된 인상뿐만 아니라 수녀복이 시대에 맞는지 투박해보이는지를 지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내현성격 이론이 성격 특성들간의 상호 연관성 뿐 아니라 의복 스타일 및 신체적 특성의 상호연관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Schneider(1979)의 이론을 지지한다. 한편 연구마다 도출되는 요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극물의 차이가 정보처리의 단계, 정보처리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등의 차이에 영향을 미쳐 연구마다 다른 요인이 도출되는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 2. 수녀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과 머리모양

<가설 1>은 수녀복의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은 수녀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이의 검정을 위하여 요인분석결과 얻어진 4개요인 각각에 대하여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보조적분석으로 MCA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의 각 단독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MCA Eta계수 차승값으로 하였고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응답자간의 비교는 평균값에 의하였다. 또 이들 평균값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과 던컨의 다중비교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따라 해석하였다.

<표 3>은 수녀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녀의 의복유형은 외모특성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성, 경직성, 능력요인의 인상에 머리모양은 경직성요인의 인상에 부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표 3>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 결과 : 전체 응답자

N=512

인상요인 독립변인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	
	F값	Eta값	F값	Eta값	F값	Eta값	F값	Eta값
의복 유형	3.55*	0.14	6.35***	0.19	11.05***	0.24	2.51	0.12
머리 모양	1.75	0.10	7.94***	0.21	0.41	0.04	0.59	0.06
의복유형 × 머리모양	0.91		1.49		0.37		0.57	

\*p<.05    \*\*p<.01    \*\*\*p<.001

<표 4>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의 인상요인에서의 평균값 : 전체응답자

N=512

인상요인평균 의복유형 및 머리모양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One-piece	0.042	ab	0.182	a	-0.044	b	-0.23	b
Blouse/Skirt	0.114	a	-0.079	bc	-0.180	b	0.09	a
Suit	-0.171	bc	-0.165	bc	-0.094	b	-0.12	ab
Blouse/Pants	-0.224	c	-0.337	c	0.461	a	0.12	ab
Cut	0.072		-0.195	b	0.06		-0.064	
파마	-0.156		-0.255	b	0.07		0.037	
Cap	-0.156		-0.211	b	-0.05		-0.129	
베일	0.000		0.261	a	0.06		-0.089	

긍정되었다.

그 중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이 큰 것은 Eta계수로 비교해 볼 때 순수성요인에서는 의복유형, 경직성은 머리모양, 능력요인에는 의복유형의 영향이 커졌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인상을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이 B/skirt는 가장 순수한 인상을 주었고, 전통적인 수녀복형태인 onepiece는 가장 경직된 인상을, B/pants는 순수하지 않고 경직성도 낮으나 가장 능력있는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수도복의 형태는 순수성은 B/Skirt 보다 낮으면서도 경직성은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일반인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수도자들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 되며, 수도복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B/skirt는 형태가 좀 더 순수하고 경직성이 낮으며 시대에 맞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모양은 경직성에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고 의복유형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다중비교결과 베일이 경직성이 가장 높고, 파마, cap, 커트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베일은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착용해왔으나 여성 수도자들의 머리가 빠지거나 청각장애의 원인이 되어 일부 수도회에서는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해진 사도직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하고 특히 일반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경직성이 낮은 cut나 파마, cap의 착용이 제안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머리모양 보다는 의복유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의복단서들 중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의복단서가 존재하며 이러한 중심적인 단서의 영향력은 맵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Asch(1946)의 주장을 지지한다.

<표 5>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 결과 : 고등학생 집단

N=256

인상요인 독립변인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	
	F값	Eta값	F값	Eta값	F값	Eta값	F값	Eta값
의복 유형	0.97	0.11	5.10**	0.23	6.60***	0.26	3.17*	0.19
머리 모양	1.34	0.12	5.31**	0.24	1.22	0.11	1.25	0.12
의복유형×머리모양	0.83		1.52		1.21		0.54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는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의 상호작용이 도출되지 않았는데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은 상호 독립적으로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응답자들이 의복유형 또는 머리모양 각각을 두두려진 단서로 범주화하여 일관된 고정관념적 인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응답자 연령의 영향

#### 1) 고등학생

고등학생집단에서는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수녀의 인상에 미친 영향은 <표 5>와 같다. 의미있는 영향을 나타낸 것은 의복유형은 경직성과 능력, 외모특성요인에, 머리모양은 경직성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착용의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단서는 경직성요인의 경우 머리모양이며 능력요인과 외모특성요인에서는 의복유형의 영향이 커졌다.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인상을 평균값으로 비교해보면 <표 6>과 같이 onepiece 형태가 가장 경직된 인상을 주었으며 외모특성요인에서도 시대에 맞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B/pants는 가장 경직성이 낮으며 능력이 있고 시대에 맞는 인상을 주었다. B/skirt는 가장 능력이 없는 인상을 주었으나 외모특성요인에서는 시대에 맞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모양은 경직성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쳐 veil이 가장 경직된 인상을 주었다.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순수성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평균값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수녀들에 대하여 순수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며, 의복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학생 집단보다는 고등학생 집단이 수녀복의 단서가 시대에 맞는지, 세련되었는지 등의 외모특성요인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lt;표 6&gt;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의 인상요인에서의 평균값: 고등학생집단

N=256

인상요인평균 의복유형 및 머리모양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One-piece	-0.35		0.166	a	-0.066	bc	-0.343	b
Blouse/Skirt	-0.09		0.052	ab	-0.405	c	0.102	a
Suit	-0.26		-0.284	bc	-0.015	b	-0.030	ab
Blouse/Pants	-0.36		-0.452	c	0.42	a	0.206	a
Cut	-0.05		-0.296	b	0.15		0.09	
파마	-0.34		-0.364	b	0.06		0.13	
Cap	-0.37		-0.154	b	-0.18		-0.20	
베일	-0.31		0.295	a	-0.09		-0.07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보호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 의복과 외모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2) 대학생

대학생집단에서 수녀의 인상에 미친 의복유형과 머리유형의 영향은 <표 7>과 같다.

의복유형은 순수성과 경직성 능력요인의 인상에 머리모양은 경직성에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영향을 미친 단서는 순수성에는 의복유형, 경직성에는 머리모양, 능력요인의 인상에는 의복유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평균값으로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이 onepiece는 가장 순수하며 경직된 인상을 주나 능력은 낮은 인상을 주었고 반면 B/pants는 순수하지 않으며 경직되지 않은 인상을 주지만 능력 있는 인상을 주었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결과를 의미있게 나타난 것만

요약하면 <표 9>와 같다.

집단별로 착용자의 인상에 미친 독립변인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집단 4개, 대학생집단 4개로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상요인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독립변인의 영향은 두 집단 모두 경직성요인에서 크게 나타났다. 의복유형은 고등학생집단의 경우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요인에 대학생집단에는 순수성, 경직성, 능력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머리모양은 두 집단 모두 경직성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머리모양은 두 집단 모두에서 경직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베일이 가장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경직성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수녀들의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순수성이나, 능력, 외모특성 요인에 보다 경직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녀들이 가까이 하기 어렵고 엄격해 보이며 경직되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lt;표 7&gt;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 변량 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

N=256

독립변인	인상요인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	
	F값	Eta값	F값	Eta값	F값	Eta값	F값	Eta값	F값	Eta값
의복 유형	5.80***	0.25	3.00*	0.18	6.73***	0.27	1.18	0.12		
머리 모양	1.35	0.12	3.49*	0.20	0.70	0.09	0.36	0.07		
의복유형×머리모양	0.60		1.31		0.65		1.32			

\*p&lt;.05    \*\*p&lt;.01    \*\*\*p&lt;.001

&lt;표 8&gt;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의 인상요인에서의 평균값 : 대학생집단

N=256

인상요인평균 의복유형 및 머리모양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평균값	Duncan
One-piece	0.434	a	0.199	a	-0.023	b	-0.12	
Blouse/Skirt	0.318	a	-0.211	b	0.044	b	-0.09	
Suit	-0.080	b	-0.046	ab	-0.172	b	-0.22	
Blouse/Pants	-0.090	b	-0.222	b	0.505	a	-0.17	
Cut	0.19		-0.093	b	-0.02		-0.21	
파마	0.02		-0.145	b	0.08		-0.05	
Cap	0.06		-0.269	b	0.08		-0.06	
베일	0.31		0.228	a	0.21		-0.10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복을 착용하므로써 순수성, 겸손, 봉사, 겉치레 없는 삶을 표현하고, 일반인들과 가까이하여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는 수도회들의 의지와는 맞지 않는 것이므로 시대 변화에 따른 수도복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베일은 두 연령 집단 모두에서 가장 경직된 인상의 두드러진 단서로 범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단서이고 이러한 범주화는 베일 착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숙성의 측면에서 용모를 숨기기 위해 착용하는 베일이 수도복이 내포하는 상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베일의 형태변화 또는 착용 여부에 대하여 수도회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lt;표 9&gt; 독립변인(의복유형 및 머리모양)과 응답자 연령이 수녀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의 요약

인상요인	독립변인	전체	고등학생	대학생
순수성	의복유형	*		***
	머리모양			
경직성	의복유형	***	**	*
	머리모양	***	**	*
능력	의복유형	***	***	***
	머리모양			
외모특성	의복유형		*	
	머리모양			

#### 4.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수녀복의 소매길이와 색상의 영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한 경우 수녀복의 소매길이 ( $T=2.3$ ,  $P<.05$ )와 색상( $F=2.5$ ,  $P<.05$ )은 모두 외모특성요인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긴소매의 착용자( $M=-0.28$ ) 또는 회색 수녀복착용자( $M=-0.28$ )는 시대에 맞지 않고 보기 싫으며 투박한 인상을, 반면에 반소매 착용자( $M=0.23$ ) 또는 감색 수녀복( $M=3.8$ )과 검정색 수녀복( $M=0.25$ )착용자는 시대에 맞고 보기 좋으며 투박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위의 결과로서 소매길이나 색상은 모두 수녀들의 순수성이나 경직성, 능력요인의 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외모특성요인의 인상에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궁정되었다.

한편 회색과 비교해 볼 때 검정이나 감색은 외모특성요인의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조사 시기가 감색이나 검정색을 많이 착용하는 동절기이기 때문이었거나, 현대 유행에서 검은색이 클라식하면서 세련된 색으로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대에 맞고 보기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미(1997)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고, 많은 수도회에서 사람들에게 좀더 가까이 가기위한 이유로 바꾸려 하고 있는 회색은 외모특성요인의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수도복의 색상의 변화는 그 시대 풍조의 변화나 사도직의 역할에 따른 보다 논리적이고 적극적인 분석을 통하

여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앞의 인상형 성연구에서 자극물의 색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회색이 전체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조사는 색상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여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반소매 착용자의 경우 진소매와 비교해 볼 때 순수성, 경직성, 능력의 인상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한 여름에도 보속의 의미나, 정숙성의 유지, 관습상으로 대부분의 수도회에서 착용하고 있는 진소매의 수도복은 사도직 활동이나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적합치 않으며, 한 여름에는 더워보여 타인에게 불쾌감까지 주므로 여름에는 계절에 맞는 반소매의 착용이 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 집단별로 구분한 경우에 고등학생집단에서 소매 길이는 순수성 요인과 외모특성 요인에 영향을 미쳐 반팔 소매( $M=2.6$ )가 진팔 소매( $M=-0.6$ )보다 순수한 것으로 ( $T=-2.67$ ,  $P<.05$ ) 또한 외모특성요인에서는 반팔 소매( $M=0.34$ )가 진팔소매( $M=-0.44$ )보다 더 시대에 맞고 보기 좋으며 세련된 것으로 ( $T=2.74$ ,  $P<.05$ ) 지각되었다. 대학생 집단에서는 소매길이에 따른 인상요인의 지각에 차이가 없었으며, 한편 색상의 경우에도 고등학생의 집단에서만 외모특성 요인에서 감색 수도복( $M=0.56$ ) 착용자와 회색 수도복( $M=-0.44$ ) 착용자간에 의미있는 차이 ( $F=3.33$ ,  $P<.05$ )를 보여 감색 수도복 착용자를 시대에 맞고 보기 좋으며 세련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연령 집단에 따른 결과로부터 대학생들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고등학생들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수도복에 대하여 대학생들보다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모호함 보다는 외모와 같은 구체적인 것을 통하여 사고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긴팔소매보다 반팔소매가 더 순수해 보이고 시대에 맞고 보기 좋으며 세련된 것으로 지각한 것은 수녀들이 종교적인 숭고함 또는 정숙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되도록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도생활이 시작된 시기부터 관습적으로 착용해오던 행동에 대하여 반대되는 시각으로서 이는 청소년들의 노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색상은 수도회마다 사도직 역할에 따라 수도회의 특성을 살려 수도복의 색상을 각기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

으나 고동색, 아이보리색, 검정색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감색과 회색에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 색상이 고등학생들의 교복색상으로 자주 착용되는 색상이므로 이들에게 더 쉽게 지각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녀들의 다양한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또한 응답자의 연령의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머리모양과 의복디자인을 달리한 수녀복착용자에 대하여 지각된 인상의 내현성격이론체계는 순수성, 경직성, 능력, 외모특성요인으로 분리 구성되어 연령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수녀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의 영향은 의복유형의 경우 순수성, 경직성 능력 요인의 인상에, 머리모양은 경직성요인의 인상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쳐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셋째, 고등학생집단에서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수녀의 인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복유형은 경직성과 능력, 외모특성요인에 머리모양은 경직성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집단의 경우 의복유형은 순수성과 경직성 능력 요인의 인상에 머리모양은 경직성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

위의 결과로 두 연령 집단에서 수녀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머리모양과 의복유형의 영향은 각 4개로 나타나 두 연령집단에서 차이가 없으나 요인에 따라 고등학생의 경우 외모특성요인에서 대학생집단의 경우 순수성요인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어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넷째, 수녀복의 소매길이와 색상의 영향은 모두 착용자의 외모특성요인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쳐 반소매착용자 또는 감색과 검정색수녀복 착용자는 시대에 맞고 보기 좋으며 투박하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유형과 머리모양이 수녀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사용이 되며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녀복의 인상에 미치는 의복단서와 연령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응답자의 종교나 가치관(종교적 가치관등) 또는 의복관심(정숙성등)등으로 세분하여 응답자변인에 따른 인상의 차이를 규명해 볼 수 있으며 둘째, 의복의 색상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각 의복 유형안에서는 형태를 세분화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된다.

### 참 고 문 헌

- Abbey, A., Gozzarelli, C., McLaughlin, K. & Harnish, R. (1987). The Effects of Clothing and Dyad Sex Composition on Perceptions of sexual Intent: Do Women and Men Evaluate these, Cues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08-126.
- Allport, G.W.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ester, Mass.; Clark Univ., Press.
- Bell, E.L. (1991) Adult's Re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8-12.
- Cantor, N. & Mischell, W. (1977). Traits as Prototypes Effects on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38-48.
- Catherine, M. Daters (1990). Importance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3), 45-50.
- Damhorst, M.L. (1984-1985) Meaning of Clothing Cues in Social Contex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39-84.
- Damhorst, M.L. (1990). In a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12.
- Hamid, P. (1968). Style of Dress as a Perceptual Cue in Impression Form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26, 904-906.
- Hamilton, D.L. (1979). A cognitive-attributional Analysis of stereotyping, In L.Berkowitz (ed.),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53-84) N.Y.; Academic Press.
- Harris, M.B., James, J., Chavez, J., Fuller, M.L., Kert, S., Massanari, C., Moor, C., Walsh, F., (1983). Clothing: Communication Complicance and Choi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88-97.
- Osgood, C., Suci, G.J. & Tannenbaum, P.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In Compton, N.H., Hall, O.A. (1972), *Foundation of Home Economics Research*, Minneapolis, Burgess Publishing Company, 279-281.
- Shneider, D.J., Hastorf, A.H., & Ellsworth, P.C. (1979). Person Perception (2nd ed.). Reading, MA: Addison -Wesley.
- Sweat, S.J., Zentner, A.N. (1985). Female Appearance Présentation; Gender Difference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175-186.
- Winakor, G. &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40-48.
- 강혜원, 이주현 (1990).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복의 의미, *한국 의류학회지*, 14(1), 31-43.
- 김광경 (1991) 남성적·여성적 의복이 직장여성의 직업특성과 직업적합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영보 (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혜선 (1982).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석도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호 (1986), 종교복식에 나타난 색채상징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청구 논문.
- 이주현 (1990). 의복 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동환 (1964).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논문집, 191-206.
- 조정미 (1997).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의 복식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 황경순(1988), 카톨릭 수도복의 변천과 상징적의미,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